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① 09. ④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① 16. ⑤ 17. ③ 18. ② 19. ③ 20. ③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① 26. ⑤ 27. ① 28. ⑤ 29. ① 30. ④
 31. ③ 32. ② 33. ① 34. ③ 35. ⑤ 36. ⑤ 37. ① 38. ② 39. ② 40. ⑤
 41. ④ 42. ④ 43. ③ 44. ②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한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궁중 음식의 의미를 밝히고 발표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조선 왕조 궁중 음식」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언급하고 있으며,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 내용 중 수라상에 대해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③ 발표자가 발표 중간에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라고 질문한 후,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라고 하며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의 앞부분에서 ‘수라상’이라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인 ‘수라’의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자는 화제 제시 후 곧바로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2. 자료 활용 방식 및 의도 추론(자료 활용 방식 평가)

정답해설 :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후, 곧바로 음식이 차려진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라상의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가 전골 요리에 쓰였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③ ㉠은 수라상의 사진이 아니라,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을 활용한 것이다.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것이 아니라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을 간단히 차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상의 하나로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으로,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

이 나타날 뿐이므로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반응 분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자1은 발표의 앞부분에서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언급한 후, 설명은 두 개만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자3은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의 의의를 밝힌 후 ‘고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유입된 재료에 따른 수라상 음식들의 변화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므로,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청자1은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표를 통해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자2는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발표를 통해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이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자3은 ‘고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유입된 재료에 따라 수라상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청자2는 ‘기미 상궁’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고, 청자3은 ‘고추’와 같은 재료가 조선 후기에 유입되었다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4~7] 화법, 작문

4. 토의 준비 과정의 추론

정답해설 : 「허생의 처」라는 작품을 활용한 (가)의 토의에서 ‘현지’는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의를 시작할 때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토의 주제를 언급(㉓)하고 있고, ‘민호’와 ‘영수’의 토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정리(㉔)해 주고 있으며,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가)에서 ‘현지’는 발언 순서를 지정(㉑)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㉒)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토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B]에서 ‘영수’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민호’의 의견에 대해 “맞아”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서,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라고 하며 ‘민호’의 의견에 대해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과연 그럴까?”라고 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②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민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한 것이 아니라, ‘민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B]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고, ‘영수’가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은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관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전자가 주된 이유이고 후자가 부차적 이유라는 식으로 구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민호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했다는 의견을 냈다가 영수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했는데, (나)의 1문단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②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그 문단의 나머지 내용들은 해당 의문에 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영수는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허생의 처가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를 불행의 원인으로 여긴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나)의 2문단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임을 밝혔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첫 문장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에 해당하는데, 뒤이어 민호는 그것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자신의 생각이 편협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㉔는 행복 수준을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물질적 풍요 수준, 인간관계의 만족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외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인 ㉕을 구체화하여, 물질적 부와 함께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행복의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는 소득 수준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이런 내용은 ㉖과도 무관하다. ② ㉔는 일

정 소득 수준을 넘어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는 ㉠과 내용상 관련이 없다. ㉡ ㉢와 ㉣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 형성의 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고, 이는 ㉠과도 관련이 없다. ㉤ ㉥와 ㉣를 활용한다 해도, 물질적 부의 추구가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또한 ㉦을 물질적 부의 추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8~10] 작문

8.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서 결정한 글감인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1문단에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를 보면,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수집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우리 학교에서 봉사의 날을 도입한 취지도 제시되지 않는다고. ㉢ (나)에는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의 선정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 병렬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나란히 늘어놓는다는 뜻인데, (나)에서는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가 (나)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어떤 문항들로 진행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은 우리 학교 학생들 중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설문 조사 자료이다. ㉡는 교육 전문 잡지에 실린 글로,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과 보완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 모두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현행 운영 방식의 단점이라는 내용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만 활용한 [A]와 달리, ㉡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다. ㉢ [A]에서는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로 자발적 참여 유도의 어려움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에 의하면 ‘보람을 느낄 수 없음’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불만족 이유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A]를 보완한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 ㉣에는 학교에서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A]에서 언급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 ㉣에 의하면, ‘자발성이 떨어짐’이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에

의하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봉사 활동에 대한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의 수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우선 주제와 맞지 않는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의의를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수정 전에는 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수정 후에는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 ③ 수정 후의 글 내용 중에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언급이 없다.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되지 않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되지 않았다.

[11~15] 문법

[11~12] 단어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어에 쓰이는 접미사는 간혹 어미나 조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법적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언 어간 + 어미’, ‘체언 + 조사’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는 미지칭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로 굳어진 사례에 대해 상술한다.

[주제] 단어의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11.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깨뜨리지만’ 등으로 활용을 하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용언 ‘깨뜨리는’의 어간은 ‘깨뜨리-’이고, 어미는 ‘-는’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이는 많지 아니하나 기개와 체질이 굳센 사람’의 뜻을 지니는 ‘아기장수’는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② ‘맨손’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③ ‘쌓인’의 어간은 ‘쌓이-’인데, 이때 ‘쌓-’이 어근이며 ‘-이-’는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모습이’에서는 체언 ‘모습’과 조사 ‘이’가 결합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12. 국어의 변천

정답해설 : [A]의 설명을 토대로 <보기>의 탐구 결과를 확인하면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사용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중세 국어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를 ‘누, 누고, 누구’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이며, ‘누고, 누구’는 ‘누’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 + 고, 누구 + 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고, 누구’가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나타난다. **③** 현대 국어인 (다)에서는 (나)에서 쓰인 ‘누고’는 나타나지 않으며 ‘누구’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누 + 고/구’가 (나)의 ‘누고/누구 + 고’로 변화하였음을 볼 때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누 + 고/구’가 새로운 단어 ‘누고/누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와 ‘누구’가 모두 나타나지만 (다)의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③에 쓰인 부사어 ‘너무’는 ‘샀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주어-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하고 있다. **②** 명사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각각 부사어로 쓰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④** ㉠의 ‘엄마와’와 ㉡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후자와 달리 전자는 문장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이다. **⑤** 일반적으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여(생략이나 보조사 실현 가능)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 ‘재가’는 보어이며, ㉣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그런데 둘 모두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4.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 ㉠ ‘흙일’은 ‘흙일 → 흑일 → 흑닐 → [흥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 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달는’은 ‘달는 → 달느 → [달른]’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야구’는 ‘발야구 → 발냐구 → [발랴구]’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임을 알 수 있다. ‘첨가’는 ㉠과 ㉢에서만 일어날 뿐 ㉡

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3회의 음운 변동이, ㉡과 ㉢에서는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교체’는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고려하면,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ㄴ 첨가(첨가)가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고, ㉢에서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다. ④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유음화(교체)가, ㉢은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⑤ ㉠과 ㉢에서 첨가된 음운은 둘 다 ‘ㄴ’이다.

15. 국어사전의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10」의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심적 의미에 대한 뜻풀이인 「1」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변화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국어사전에서 ‘[]’는 표준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는데, 개정 전에는 [김:밥]만 인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김:밥]과 [김:뺨]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냄새’에 대한 뜻풀이는 개정 전후가 동일하지만 ‘내음’은 개정 전에는 경상도 방언으로 처리하였던 데 반해, 개정 후에는 표준어 표제어로 등재하고 새로운 뜻풀이를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태양계’의 개정 전후 뜻풀이에서는 ‘9개의 행성 → 8개의 행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 과학적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결과이다. ⑤ ㉢에서는 ‘스마트 폰’을 표제어로 추가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던 문물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표현을 표제어로 올린 것이다.

[16~19] 독서

[16~19] 인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과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목적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이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비판들을 소개한 후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현대의 학자들이 지적한 반박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17세기 이후의 물질론적·환원론적 사고와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에 대하여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탐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핵심적 사고와 그 의의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소개 - 이 이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비판 - 이 비판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반박 - 목적론의 의의 제시’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글의 처음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소개한 후 근대의 학자들인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의 이 이론에 대한 비판들과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반박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는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했다는 것은 목적론에 상응하는 다른 이론을 제기했다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대등한 다른 이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목적론에 대한 근대 학자들의 반론을 제시하였다. 각 이론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근대 학자들의 비판과 현대 일부 학자들의 반박을 목적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과 이 비판들에 대한 반박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비판의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④ 목적론에 대한 비판으로 근대의 학자들의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대순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목적론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지닌 긍정적 의의를 부각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고, 그러한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하며,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난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 마지막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다시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미는 이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 생각했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낙엽을 비롯한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⑤ 목적론에서는, 자연물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본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그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릴레이는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입장에서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③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며 목적론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베이컨 등 근대 학자들의 목적론 비판을 반박했다. ④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하였다. 볼로틴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과학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기는 했지만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 것이다. ⑤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사물을 의인화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1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자연물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 환원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기>의 마이어 역시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나’며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마이어의 생각은 엠페도클레스의 생각과 유사하지만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창발론의 입장은 엠페도클레스의 견해와 상충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를 반박했다. ② 마이어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주장과 반대의 견해를 보였다. ④ 마이어는 모든 자연물이 아니라 생명체의 특징으로 ‘창발론’을 주장한 것이며, 생명체의 경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러한 내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이어 역시 생명체의 특성이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2] 현대시 - (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나) 김광규, '묘비명' /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지문해설 : (가)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은 '짹짹 얼'은 강, 하늘 끝에 달은 '사막'과 같은 공간적 배경과 '밤'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화자는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강 건너 어딘가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삶의 희망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나)는 세속적 영달을 추구했던 인물이 남긴 '묘비명'을 소재로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 지적하고, 역사가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 반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주제]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태 비판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다)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시 쓰기를 통해 시인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시가 반영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 진실'과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당위적 진실'로 구분하고, 시인은 이 두 가지 현실을 시를 통해 형상화하면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를 갖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인간의 일상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詩)

20.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짹짹 얼은 강과 사막을 건너 무지개의 한 가락 어디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고, (나)는 '묘비명'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뎌내고 표현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가 청자를 염두에 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와 (나)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지만 (가)의 경우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갔소'와 같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달 밝은 밤'이나 하늘 끝에 달은 '사막', '눈물 먹은 별' 등 자연의 모습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비석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뜨거움'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가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임을 고려할 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나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표현에 반어적 어조가 활용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경우 반어적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는 시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반영’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나타나는 ‘일상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과 ‘있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는 ‘당위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죽음’과 ‘밤’의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 아니며,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뺨뺨 열어 조이던 밤’의 표현에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혹독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건너가고자 하는 강 저편의 공간적 배경을 ‘사막’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삭막하고 고된 것임을 표상하고 있다. ③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인 ‘밤’에 희망을 표상하는 ‘무지개’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를 물질적 가치로 인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묘비명’은 부정적 인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에 영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강을 건너간 ‘노래’는 화자가 부른 것이므로, ‘노래’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의 관점에 따라 이 작품을 ‘시에 대한 시 쓰기’로 보면 시의 화자는 곧 시인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② 3연에 ‘노래’가 강을 건너 간 이유를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노래’가 집조차 없’는 이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의 내용은 시와 소설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한 사람의 삶이 담긴 것이다. 화자는 정신적 가치가 외면 받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묘비명’은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묘비’에 기록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후세인들에게는 ‘귀중한 사료’가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묘비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통해 화자는 시인으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23~26] 문학

[23-26] 고전 소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 씨와 악인인 교 씨를 등장시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유 한림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무능한 가장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다. 지문에는 교 씨의 참소로 폐출된 사 씨의 모습과 교 씨와 동청의 모의로 유배당한 유 한림의 행적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사 씨의 덕행에 대한 칭송과 악행을 저지른 교 씨에 대한 징벌

2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는 사 씨의 질문에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모'는 황릉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를 통해 사 씨와 남해 도인이 인연이 있음을,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를 통해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 줄 조력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여승이 관음보살의 명을 받아 사 씨를 도우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를 통해, 유 한림이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를 통해, 유 한림을 낮게 한 샘물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없애는 방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는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여승이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사 씨가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과 사 씨와 두 왕비의 재회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렴을 내리는 소리’는 그림 속 왕비를 만나는 꿈에서 깨도록 하는, 즉 사 씨를 비현실 세계에서 유모와 시비가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나무 수풀’은 사 씨가 왕비를 만나러 가는 상황과 유모와 시비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상황, 즉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 상황을 중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상화’는 사 씨가 꿈속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과, 초월적 존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꿈에 나타났음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병을 뜯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와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은 꿈에서 본 물건으로서, ‘병’이 있던 자리에 솟은 샘물은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는 곤경에 처한 사 씨에게 조력자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는 왕비가, ㉕는 유배지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유 한림을 낫게 해 줄 ‘병’을 전달하는 노파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㉕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㉔의 경우 꿈에 등장한 인물이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과 여영임을 밝히고 있지만, ㉕의 경우 흰 옷을 입은 노파라고만 말하고 있어 해당 인물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 한림이 노파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③ ㉔에서 왕비는 사 씨에게 ‘때가 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㉕에서는 유 한림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곤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㉔에서 사 씨는 역사 속 인물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고, ㉕의 경우 유 한림은 어느 노파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㉔와 ㉕의 경우, 사 씨와 유 한림이 아황과 여영 또는 흰 옷 입은 노파를 만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문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⑤ ㉔와 ㉕에는 꿈을 꾸 주체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 씨와 유 한림의 출생 내력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주 사람들이 유 한림과 관련한 신기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 물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

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파를 만나 병이 낫는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② 유 한림이 외로움과 고초를 겪게 되면서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③ 사 씨가 꿈에서 역사 속 인물을 만나고, 관음보살의 명령을 받은 여승을 만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④ 유 한림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과 관련된 곳을 사람들이 학사정이라고 지칭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괴이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평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27~32] 독서

[27~32] 사회, '정부의 정책 수단'

지문해설 : 이 글은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사례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버슈팅이라 한다. 오버슈팅은 단기적인 물가 경직성이나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촉발되는 것으로, 시장의 조정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게 된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의 급등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주제] 환율의 오버슈팅을 사례로 본 정부의 정책 수단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 물가가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을 통해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 하는데, 이는 물가 경직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금리 하락의 폭이 작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환율은 단기에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한 반면 물가의 경우 단기에 신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가의 조정 속도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을 통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영할수록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가 경직성이 클 경우에는 물가의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므로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2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자동성은 정책 수행을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카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위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강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의 강화는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반면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므로 가시성이 높다. ③ 자연 보존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금지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 ④ 정부 기관에서 특정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일수록 직접성이 높으므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으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정부 기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에 해외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면 B국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B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B국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적어지는 반면 A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금융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므로 A국 환율의 오버슈팅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A국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A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A국에 외환의 유입이 증가하면 A국 환율은 다시 낮아져 균형 환율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A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A국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책 당국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A국의 내수는 위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단기에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에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실질 통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c이다. 한편 시장 금리의 경우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가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면 반등하게 되므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a이다. 환율의 경우 오버슈팅에 의해 크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로 수렴되는데, 이는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런데 자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균형 환율 역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b이다.

정답 ④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단락에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설명되고 있다. 미세 조정 정책의 수단으로 정보 공개, 가격 규제 축소, 세금 조절, 환율 변동 보험 제공, 지급 보증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와 같은 강제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 보험의 제공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② 5문단에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조절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④ 5문단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급 보증 제도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⑤ 5문단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32.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드러낼’은 ‘드러나다’의 사동사인 ‘드러내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말이므로 ‘노출될’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괴리되다 :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③ 초래하다 :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 ④ 복귀하다 :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 ⑤ 도모하다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33~37] 문학

[33~37] 고전 시가 - (가) 이정환, ‘비가’ / 현대 수필 - (나) 이병기, ‘풍란’

작품 해제: (가)는 작가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지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느낀 수치심과 비통함,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특히 치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한탄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1수에서는 꿈을 통해 청나라에 붙잡혀 있는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제4수에서는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을 떠올리며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탄이, 제6수에서는 무신이 많으면서도 싸우지 못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에 대한 아픔이, 제7수에서는 두 왕자와 백성들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고 근심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이, 제8수에서는 자신을 풀에 대조하면서 국치를 당한 데 대한 아픔이, 제9수에서는 치욕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

작품 해제: (나)는 작가가 난(亂)을 기르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난을 잃고 얻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난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자신의 옆에서 위안이 되어 준 난에 대한 애정과 예찬을 두 수의 시조에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33. 화자의 태도 이해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세자와 백성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꿈’에서나마 ‘만 리 요양’을 가

서 '학가 선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름겨워 흐노라'와 '갈 길 몰라 흐노라'를 통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비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는 작가가 역사적 순간마다 고난을 겪으며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과 그때마다 난 역시 고난에 처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난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삶을 유한하다고 인식하거나 이를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작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뇌하고 회의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함께 해 준 난에 대한 고마움과 예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3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해설: (가)에서 화자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화자가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가 '서울'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학가 선객'은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킨다. 그런 그를 '꿈'에서 보았다는 것은 화자가 소현 세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 나오는 '박제상'은 신라의 사람으로 일본에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하고 죽은 충신이다. 화자는 그러한 충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나)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도 뿌리만성한 난을 돌보아 살리거나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풍란'을 길러냈다는 말을 통해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작가는 '두실와옥'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대조되는 누추한 공간이지만 고서와 난, 그리고 술 한 병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즉 '정신'을 기르는 존재로서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해설: ㉠은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저절로 잘 자라는 존재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은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로, 부정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은 화자와 대비되어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혼란의 역사적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므로 둘 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며 ㉣이 바람에 날려 갈 곳 모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둘 다 세월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으나, ㉡은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소재이다. ④ 화자는 전란 후의 치욕적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은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라기보다는 현재의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해설 : <제7수>의 ‘달 발근 밤’은 임금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제8수>의 ‘봄비’는 화자와 대비되는 ‘풀’을 자라게 하는 소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에게 다녀왔다는 의미이고,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는 청나라에 잡혀 있는 세자를 모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두 구절에는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제4수>에서 박제상이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제6수>에서 ‘조구리’와 같이 세자를 호위하여 모셔 올 이가 없다는 것은 화자가 이러한 충신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제6수>에서는 나라에 무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하여 어려움(辛苦)에 처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란, <제7수>에서 말하는 세자의 ‘이역 풍상(異域風霜)’이다. 즉 ‘이역 풍상’은 청나라와의 화친으로 인해 세자가 이국(異國)에 잡혀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④ <제7수>에서 화자는 잠을 자지 못하며 근심하고 있는 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며, 나아가 <제9수>에서는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라 말하며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해설 : ‘썩은 향나무 껍질’은 난이 자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난의 ‘옥 같은 뿌리’와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단락에서 작가는 난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 ‘두실 와옥’과 어울리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옥 같은 뿌리’가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4문단에서 작가는 난이 피워낸 하얀 꽃의 ‘방렬·청상한 향’을 맡으며 [A]를 창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때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으로, 이것이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③ [A]의 바로 아래 부분에서 작가는 ‘나는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단락에서 ‘어느 집에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고 하였다. 즉 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A]의 ‘아는 이’로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의 위 부분에서 바닷게를 먹고 병이 나서 병석에 있으면서 난을 곁에 두었는데 그 향이 좋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A]에서 작가는 병상에서 옆에 둔 난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옥 같은 뿌리’,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이라는 어구로 ‘난’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늘 함께해 온 ‘난’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8~42] 독서**[38~42] 기술,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전송 과정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 데이터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부호화 과정은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선 부호화는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주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전송 과정과 부호화 방식

3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서는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신기에는 부호를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데이터는 소스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잉여 정보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추

가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하는 정보가 아니라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추가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을 전송할 때도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을 갖기 위해서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에는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1/2로 동일하다면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④에서 각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로 동일한 경우가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은 최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였으며, 주석에서 평균 정보량은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은 기호의 정보량과 반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경우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4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부호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부호로 판단을 하므로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도 오류는 정정된다고 하였다. 즉 000,

001, 010, 100을 모두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가 정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다. 0이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000이 되는데, 만일 이 중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겨 011이 되면 1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1로 인식되므로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선 부호화는 부호들을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선 부호화는 수신기가 아니라 송신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어떤 기호 집합에서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는 기호의 발생 확률이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③ 3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채널 부호화의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여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함으로써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잉여 정보를 포함한 상태에서 선 부호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부호율은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이후의 비트수로 나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채널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잉여 정보를 추가한 후의 비트 수는 채널 부호화 과정 전의 비트 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부호율은 1보다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차동 부호화는 기준 신호를 활용하여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비’의 부호는 ‘10’이므로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111000’이 된다. 여기에 차동 부호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이라면 처음에 1이 나왔으므로 전압을 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뒤이어 1이 나왔으므로 전압을 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음에도 1이 나왔으므로 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후 ‘000’이 나올 때에는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그대로 ‘음, 음, 음’의 전압을 갖게 된다. 따라서 ‘111000’이 차동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라고 하였으며 1문단에서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4개의 기호는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며, 각각의 기호는 2개의 평균 비트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의 최댓값은 2이

다. ② 2문단에서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개의 기호를 각각 2개의 비트 수로 부호화하였다. 그러므로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01100001’로 바뀐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은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하며, 수신기에서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삼중 반복 부호화된 결과를 ‘110001’과 ‘101100’으로 수신하였다면 이는 모두 ‘10’으로 판단되어 같은 날씨로 판단된다. ⑤ ‘흐림’이 삼중 반복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 ‘000111’이 된다. 이를 차동 부호화할 때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00111은 ‘양, 양, 양, 음, 양, 음’의 전기 신호로 변환되게 된다. 그러므로 ‘음, 음, 음, 양, 양, 양’의 전기 신호를 ‘흐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파악

정답해설 : 동음이의어란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이다. ㉠은 변화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금이 간 인간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 ‘복원’과 의미가 같다. 그러므로 ㉠과 ㉣의 ‘복원’은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는 ‘글이나 사진 따위를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먼 곳에 보냄.’의 의미이다. ㉠의 ‘전송’은 ‘예를 갖추어 떠나보냄.’을 의미하므로 ㉠의 전송은 ㉡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하며 ㉡의 ‘기호’는 ‘즐기고 좋아함.’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의 기호는 ㉢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③ ㉤는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를 의미하며 ㉢의 부호는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 부호는 ㉤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의 의미이며 ㉤의 ‘결정’은 ‘애써 노력하여 보람 있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 결정은 ㉥의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소설 - 이문구, ‘관촌수필’

지문 해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고향인 관촌부락을 배경으로 한 8편의 연작소설 ‘관촌수필(冠村隨筆)’ 중 하나인 ‘관산추정(關山芻丁)’으로,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정서는 ‘도깨비불’을 매개로 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교차시키는 구

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도깨비불’은 고향의 공동체가 공유했던 ‘금기’로서 어린 시절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금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결속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작가는 사라진 ‘도깨비불’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와 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이 글은 어린 시절의 ‘도깨비불’에 대한 인상과 어른이 된 후의 ‘도깨비불’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도깨비불’을 보며 두려워하였는데 어른이 된 후에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도깨비불’에 대한 인물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은 ‘도깨비불’에 대한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와 현재에 ‘도깨비불’을 보는 사건을 반복이라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하나의 사건이 한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공간의 이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지문의 경우 ‘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⑤ 이 글은 시간이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한 것도 아니며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와 ㉠ 다음의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른들이 ‘도깨비불’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우기며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 다음에 나오는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린 시절 보았던 ‘도깨비불’을 우연히 보게 된 것에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와 ㉢ 뒤에 나오는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며 ‘가슴의 설렘’과 같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뒤에 나오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기대했던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실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구절을 보면,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어른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보면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윗글의 어른들이 금기의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한 것은 금기가 설정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들 세대 역시 ‘도깨비불’에 대한 금기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낮춘말’로 ‘귀뜸’하는 행위는 곧 금기를 말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한 감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곧 ‘나’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상실의 대상이 어린 시절의 추억인 ‘도깨비불’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한 감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